

#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수준의 관계: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매개변인으로

심 승 연

최 준 호

김 은 경<sup>†</sup>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수련생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수련감독자

이 연구의 목적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수준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소재에 대학생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모호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척도(AUSD-EX), 상태불안 척도(STAI-S), 인지적 종결 욕구 척도(NFCS), 인지적 회피 척도(CAQ)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수준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수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아져 인지적 회피 경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안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들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불안, 인지적 종결 욕구, 인지적 회피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은경, (11923)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수련감독자, Tel: 031-560-2272, E-mail: aidaworld@hanmail.net

불안이란 위협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위협적으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두려움, 공포와 불안정감과 같은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Nitschke, Heller, Imig, McDonald, & Miller, 2001).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의 각성을 유도하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위협을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존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송현화, 장혜인, 2017; Calhoun & Tye, 2015). 하지만 위협적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면 병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함진선, 이장한, 2012; Takagi, Ando, & Umemoto, 2017). 이러한 병리적인 불안은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등과 같은 불안장애에 해당하며,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8.7%, 일년 유병률은 6.8%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정신 장애 유병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할 만큼 흔한 정신장애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더해, 불안장애는 직업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Kariuki-Nyuthe & Stein, 2015; McLean, Asnaani, Litz, & Hofmann, 2011),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장애로 발병 후에도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기제를 밝히는 것은 불안장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에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50년대부터 인지심리학이 발전되면서 불안을 인지적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하고

이해하려 시도하였다(권석만, 1996; 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러한 시도 끝에 인지적 편향이 불안을 야기시키고 유지시키는 하나의 기제가 밝혀졌다(Hayes & Hirsch, 2007; Wells & Mathews, 1994). 어떠한 정보처리 유형이 불안에 주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해석 편향이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Waters, Craske, Bergman, & Treanor, 2007; Davey, Hampton, Farrell, & Davidson, 1992; Marks, Kraft, Grant, & Wells, 2021). 해석 편향(interpretation bias)은 모호한 자극이나 정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Beard & Amir, 2008). 이러한 정보처리 유형 중 하나인 해석 편향은 사회불안장애(Rapee & Heimberg, 1997; Peschard & Philippot, 2016), 범불안장애(Hayes, Hirsch, Krebs, & Mathews, 2010), 공황장애(Clark, 1997; Wound, Zhang, Becker, McNally, & Margraf, 2014), 신체변형장애(Dietel, Mobius, Steinbach, Dusend, Wilhelm, & Buhlmann, 2020) 등 불안과 관련된 장애에서 관찰된 바 있다. 모호함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모호함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일수록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보에 빈번하고 과도하게 노출되어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병리적인 증상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Van Bockstaele et al., 2019).

아울러 개인은 불안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성향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성향은 두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지 욕

구와 인지적 종결 욕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는 모호한 상황에서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 능동적으로 답을 찾으려하고, 이 과정을 통한 사고와 학습을 즐기는 성향을 의미한다(Cacioppo, Petty, & Kao, 1982). 반대로,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는 모호한 상황을 회피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원하는 성향을 뜻한다(Kruglanski & Webster, 1996). 특히, 인지적 종결 욕구는 정신병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던 중요한 개념으로, 정신증(Bentall & Swarbrick, 2003; Freeman et al., 2006; McKay, Langdon, & Coltheart, 2006), 범불안장애(Colbert, Peters, & Garety, 2006), PTSD(Goren & Neter, 2016) 등 부정적인 심리 장애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더불어 인지적 종결 욕구 성향 높은 개인은 종결을 내리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불안해진다고 한다(Vermeir & Kenhove, 2005). Roets와 Van Hiel(2008)은 인지적 종결 욕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 피부 반응과 심박수를 통해 각성 수준을 측정할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각성 수준이 점차 증가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더욱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인지적 종결 욕구는 불안과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안에 대한 취약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더해 인지적 종결 욕구는 사회불안장애(Roets & Soetens, 2010)와 강박장애(Mancini, D'Olimpio, Del Genio, Didonna, & Prunetti, 2002) 등 불안과 관련된 장애와 관련하여 주목받아왔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5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Webster와

Kruglanski(1994)는 인지적 종결 욕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이를 대표하는 5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결 욕구 척도(Need for Closure Scale: NFCS)를 개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각 하위 척도는 구조화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결단성(decisiveness), 모호함으로 인한 불편감(discomfort with ambiguity), 폐쇄성(close-mindedness)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하지만 NFCS가 문항수가 많아서 연구 분석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온 바, 이 연구에서는 단축형 NFCS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단축형 종결 욕구의 타당화 연구들에서 문항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Houghton & Grewal, 2000; Roets & Van Hiel, 2011). 이는 Roets와 Van Hiel(2011)이 설명하였듯이 결단성 문항들이 종결 욕구보다 종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단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척도들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은 인지적 종결 욕구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Rosen, Ivanova, Knauper(2013)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인지적 종결 욕구 모두 확실함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는 두 척도 모두가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를 공통적으로 측정하며 이외의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ruglanski(1990)은 인지적 종결 욕구를 불확실

성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종결 욕구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Dugas, Hedayati, Karavidas, Francis와 Phillips(2005)의 연구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중립적인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oerner와 Dugas(2008)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인다고 한다. 아울러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적 상관을 보여 모호함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였으며, 더 나아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Li, Gao, Zhang, Li, & Cui, 2021). 이렇듯 모호한 자극이나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일수록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며 실제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인 인지적 종결 욕구도 해석 편향과 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적 종결 욕구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불안에 있어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종결 욕구가 어떻게 개입하는 지 규명하는 것이 불안의 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회피는 불안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변인 중 하나이다. 인지적 회피(cognitive avoidance)는 위협적으로 지각되는 심상이나 내적 경험으로 인한 생리적 및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고를 억제하고 피하는 인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Dugas, Buhr, & Ladouceur, 2004). 불안장애 장의 하위 장애에 속하는 범불안장애에서 인지적 회피를 주요한 인지적 방어전략으로 보고되었다(Blalock & Joiner, 2000).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은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불안장애 군의 하위에 속하거나 불안을 주된 증상으로 보이는 장애에서도 인지적 회피가 장애의 취약 요인이거나 유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Foa와 Kozak(1986)은 불안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에 접근하여 완전한 정서적 처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수정과 김은정(2009)은 인지적 회피가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어로 사용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정서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서적 단서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되어 더 강한 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지적 회피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Santanello와 Gardner(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석 편향이 인지적 회피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남지수, 김은경, 김춘길, 정승교, 박용천(2017)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모호한 자극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는 인지적 회피를 거쳐 불안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불안과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는 인지적 종결 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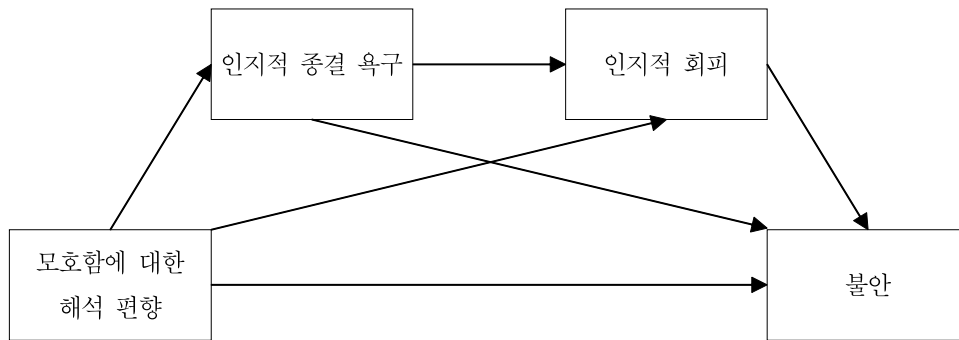


그림 1. 이중 매개 모형

구와 인지적 회피를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종결 욕구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인지적 회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불안, 인지적 종결 욕구, 인지적 회피 간의 부분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그림 1의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매개로 하여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중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안의 발생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일반 성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종합하면,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호함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일수록 불안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셋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회피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넷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매개로 하여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법

### 참여자

이 연구는 지방 소재에 대학생 533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설문지 중 무응답과 무선반응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51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세 ( $SD=2.40$ )였다.

### 측정 도구

**모호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척도 (Ambiguous/Unambiguous Situations Diary-Extended version: AUSD-EX).** 이 연구에서

는 Davey, Hampton, Farrell와 Davidson (1992)이 개발한 모호한 상황과 모호하지 않은 상황이 각각 14문항으로 구성된 모호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척도를 Koerner와 Dugas(2008)가 55개의 문항으로 확장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문항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들이 경험할 걱정의 정도를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걱정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해당 척도는 우정, 애정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업 수행, 직장, 재정, 건강, 친밀한 사람의 건강,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 미래, 자기개념의 총 11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의 문항들은 1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 1개의 부정적인 시나리오, 3개의 모호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을 평정하기 위해 55개의 문항 중 모호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33개에 대한 결과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상태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S).** 불안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한국판 척도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는 상태불안, 특성불안 각각 2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전운과 박기환(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4로 보고되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인지적 종결 욕구 척도(Need for Closure Scale: NFCS).**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Webster와 Kluglandski(1994)가 개발한 척도를 김은정(2021)이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NFCS는 질서 및 구조화에 대한 선호, 예측 가능성에 대한 선호, 결단성, 모호함으로 인한 불편감, 폐쇄성을 측정하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 하지않음(1)’에서 ‘절대 동의함(6)’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된다. 따라서 인지적 종결 욕구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모호함을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은정(2021)의 타당화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인지적 회피 척도(Cognitive Avoidance Questionnaire: CAQ).** 인지적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Gosselin 등(2002)이 프랑스어로 개발한 척도를 Sexton과 Dugas(2008)가 영문판으로 번안하였고, 송수정과 김은정(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고억제, 사고 치환, 주의분산, 위협 자극 회피, 심상을 사고로 전환을 측정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다. 송수정과 김은정(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4였다.

## 통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이중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 방법인 Preacher와 Hayes(2021)이 개발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0)은 첨도가 절대값 8.0보다 크거나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다면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한편, Hong, Malik, Lee(2003)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첨도가 절대값 7이내, 왜도가 절대값 2이내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단변량 정규성의 정상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들의 정규성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 각각의 첨도는  $-0.16 \sim 1.40$  사이에 분포하고, 왜도는  $-0.33 \sim 0.4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고, 정상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인지적 종결 욕구, 인지적 회피, 상태 불안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에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변인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상태 불안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7, p<.001$ . 이로 볼 때,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개변인에 대해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종결 욕구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r=.27, p<.001$ ,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회피에 대한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r=.31, p<.001$ , 이는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인지적 회피 경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에 대한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볼 때,  $r=.30, p<.001$ ,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경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인지적 종결 욕구,  $r=.30, p<.001$ ,와 인지적 회피,  $r=.26, p<.001$ , 모두 상태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지적 종결 욕구 및 인지적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상태 불안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이중매개효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시한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준거변인은 불안으로 설정한 후, 매개변인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차례로 투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수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이 모형의 설명력은 14.7%로 나타났고, 불안에 대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514)=41.553, p<.001$ . 구체적으로 볼 때,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50, t=6.446, p<.001$ .

다음으로 일차매개변인인 인지적 종결 욕구 검증을 시행한 결과, 인지적 종결 욕구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 514)=39.420, p<.001$ , 설명력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N=516)

	1	2	3	4
1.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2. 인지적 종결 욕구	.27***			
3. 인지적 회피	.31***	.30***		
4. 상태불안	.27***	.30***	.26***	
평균 (표준편차)	89.17 (20.27)	42.52 (6.61)	77.89 (14.50)	46.75 (11.12)
왜도	.37	-.27	-.36	.13
첨도	-.19	.48	.96	-.20

\*\*\*  $p<.001$ .

표 2.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이중매개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95% CI		F			R <sup>2</sup>
					LL	UL	F	df1	df2	
인지적 종결 욕구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087	.014	6.279***	.060	.114	39.420	1	514	.071
	인지적 종결 욕구	.504	.093	5.426***	.321	.686	43.724	2	513	.146
인지적 회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179	.030	5.892***	.119	.238				
	불안	인지적 종결 욕구	.344	.073	4.694***	.120	.487	29.378	3	512
인지적 회피		.115	.034	3.386***	.048	.181				
불안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095	.024	3.940	.047	.142	41.553	1	514	.075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	.150	.023	6.446	.104	.196				

\*\*\*  $p<.001$ .



은 7.1%로 나타났다.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은 인지적 종결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087$ ,  $t=6.279$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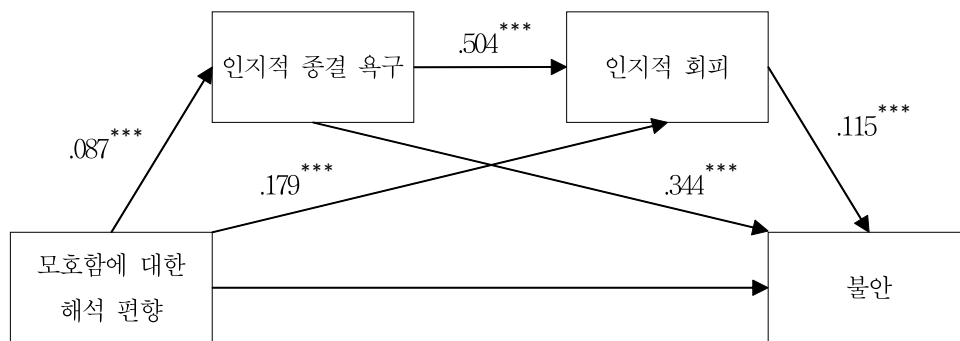
이차매개변인인 인지적 회피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결과, 인지적 회피에 대한 인지적 종결 욕구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 513)=43.724$ ,  $p<.001$ , 이 모형의 설명력은 14.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회피에 대한 인지적 종결 욕구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504$ ,  $t=5.426$ ,  $p<.001$ . 더불어 인지적 회피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의 관계 또한 유의하였다,  $B=.179$ ,  $t=5.892$ ,  $p<.001$ . 이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인지적 회피에 영향을 끼치고,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은 인지적 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매개변수 모두 투입하여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를

표 3.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150	.023	6.446***	.104	.196
직접 효과	.946	.240	3.940***	.447	.142
간접효과 (total)	.055	.011		.035	.077
매개효과1: X→M1→Y	.030	.009		.015	.049
매개효과2: X→M2→Y	.021	.008		.006	.037
매개효과3: X→M1→M2→Y	.005	.002		.001	.010

\*\*\*  $p<.001$ .



$c=.150, c'=(.946^{***})$

그림 2.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매개모형

주.\* 유의한 경로

\*\*\*  $p<.001$ , c: 전체효과, c': 직접효과

검증한 결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F(3, 512)=29.378, p<.001$ , 이 모형의 설명력은 14.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종결 욕구는 불안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344, t=4.694, p<.001$ . 또한 인지적 회피는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115, t=3.386, p<.001$ ,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불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B=.095, t=3.940, p<.001$ . 이로 볼 때, 모호한 상황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경향성이 높고 인지적 회피와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를 통해 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함이 밝혀졌다( $B=.030, 95\% \text{ bias-corrected CI}=.015-.049$ ). 더불어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에서 인지적 회피를 거쳐 불안으로 가는 모형의 경로에서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21, 95\% \text{ bias-corrected CI}=.006-.037$ ). 또한 해석 편향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거쳐 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5, 95\% \text{ bias corrected CI}=.001-.010$ ). 즉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직렬매개효과가

유의하며,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수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더해 인지적 회피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불안이 상승하게 된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 주목하여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은 불안과 관계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관된 결과로 입증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변인 중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는 그 중요성에 비해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기에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본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가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인지적 종결 욕구와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위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Li et al., 2021). 이처럼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모형들이 검증이 되었으나, 불안과 관련성이 높은 인지적 종결 욕구를 함께 모형에 포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추후 높은 불안 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으

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뿐만 아니라 인지적 종결 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회피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지적 회피를 증가시켜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경향성을 높이고 이는 불안을 촉발한다고 하였다(남지수 등, 2017). 인지적 회피는 정서적 고통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를 유발하는 사고를 억제하고 피하고자 하는 회피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회피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결국 심리적 고통감이 감소되기보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정서적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고통감이 증가된다고 한다(송수정, 김은정, 2009). 이렇듯 모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쉬워 인지적 회피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고를 억제하려 하나, 결국은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는 취약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를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가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은 불안 수준의 원인 중 하나이거나 유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Colbert et al., 2006; Vermeir & Kenhove, 2005), 현재까지 인지적 종결 욕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종결 욕구에 대한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인지적 회피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밝히는 것이 불안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아져 인지적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안을 고조시킬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중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이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인지적 회피에 선행하면서 인지적 회피의 발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유사하다고 주장되어 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걱정의 관계를 인지적 회피가 매개하며(김슬기, 김은정, 2018),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인지적 회피가 습관적인 대처전략으로 활용되고, 이에 불안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즉,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의 정적 상관 및 선후 관계를 불안과 관련된 변인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지적 종결 욕구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인지적 종결 욕구 뿐 아니라 인지적 회피에 맞춘 예방적,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모형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으나, 불안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함께 살펴본 모형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높은

불안 수준을 설명하는 가능한 변인인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추후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맞추어 증상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셋째, 이 연구에서 핵심 변인인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시나리오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 되지 않은 척도로 개발된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이러한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이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거쳐 불안을 예측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인지적 회피를 줄이는 예방적인 개입을 시행한다면 대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슬기, 김은경 (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995-1014.
- 김은경 (2020). 단축형 종결 욕구의 타당화.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10), 166-173.
- 남지수, 김은경, 김춘길, 정승교, 박용천 (2017).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호함에 대한 해석 편향과 인지적 회피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 보건복지부 (2011). 정신 질환자 실태조사. 2021년 6월 2일 자료추출. <http://www.mohw.go.kr>.
- 송수정, 김은정 (2009). 한국판 인지적 회피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515-531.
- 송현화, 장혜인 (2017).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상태 통제소재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65-185.
- 전운, 박기환 (2013).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의 불안과 사후반추사고에 자기심상 조작이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1), 87-105.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505-512.
- 함진선, 이장한 (2012). 특질 불안 경향자의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연구: 안구운동 추적장비를 이용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31(1), 355-37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uthor.
- Beard, C., & Amir, N. (2008). A multi-session interpretation modification program: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social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10), 1135-1141.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ntall, R. P., & Swarbrik, R. (2003). The best laid schemas of paranoid patients: Autonomy, sociotropy and need for closur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8(2), 163-171
- Blalock, J. A., & Joiner, T. E. (2000). Interaction of cognitive avoidance coping and stress in predicting depression/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1), 47-65.
- Cacioppo, J. T., Petty, R. E., & Kao, C. F. (1984). The efficient assessment of need for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306-307.
- Calhoun, G. G., & Tye, K. M. (2015). Resolving the neural circuits of anxiety. *Nature Neuroscience*, 18(10), 1394-1404.
- Clark, D. M. (1997). Pan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In D. M. Clark & C. G. Fairburn (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ur therapy* (pp. 119 -15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bert, S. M., Peters, E. R., & Garety, P. A. (2006). Need for closure and anxiety in delusion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early psycho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0), 1385-1396.
- Davey, G. C., Hampton, J., Farrell, J., & David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2), 133-147.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pp. 143-163) New York: Guilford.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Francis, K., & Phillips, N. (2005). A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57-70.
- Foa, E. B., & Kozak, M. J.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1), 20-35.
- Freeman, D. P., Garety, E., Kuipers, S., Colbert, S., Jolley, D., & Fowler, D. (2006). Delusions and decision-making style: Use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147-1158.
- Goren, C., & Neter, E. (2016). Stereotypical thinking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terror and PTSD symptoms among Israeli youth. *Anxiety Stress Coping*, 29(6), 644-659.
- Gosselin, P., Langlois, F., Fre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Pelletier, O. (2002). Le Questionnaire d'Évitement Cognitif (QEC): Développement et validation auprès d'adultes et d'adolescents [The Cognitive Avoidance Questionnaire (CAQ): Development and validation among adult and adolescent samples]. *Journal de Thérapie Comportementale et Cognitive*, 12(1), 24 - 37.
- Hayes, S., & Hirsch, C. R. (2007).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sychiatry*, 65), 176-182.
- Hayes, S., Hirsch, C. R., Krebs, G., Mathews, A. (2010). The effects of modifying interpretation bias on worry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3), 171-178.
- Houghton, D. C., & Grewal, R. (2000). Please, let's get an answer-any answer: Need for consumer

-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17(11), 911-934.
- Kariuki-Nyuthe, C., & Stein, D. J. (2015). Anxiety and related disorders and physical illness. *Comorbidity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179, 81-8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oerner, N. & Dugas, M. J. (2008). An investigation of appraisals in individuals vulnerable to excessive worry: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1), 4-16.
- Kruglanski, A. W. (1980). Lay epistemo-logic—process and contents: Another look at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7(1), 70 - 87.
- Kruglanski, A. W. (1990). Motivations for judging and knowing: Implications for causal attribu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333 - 368).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ruglanski, A. W., & Webster, D. M. (1996).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2), 263 - 283.
- Li, J., Gao, J., Zhang, Q., Li, C., & Cui, L. (2021). The Efficacy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tervention on Anxiety and its Mediating Role by Multilayer Linear Model Analysi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43(1), 142-151.
- Mancini, F., D'Olimpio, F., Genio, M. D., Didonna, F., & Prunetti, E. (2002). Obsessions and compulsions and intolerance for uncertainty in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4), 401-411.
- Marks, C. K., Kraft, J. D., Grant, D. M., & Wells, T. T.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e interpretation bia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a replication across two samp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 Behavioral Assessment*, 43(2), 251-258.
- McKay, R., Langdon, R., & Coltheart, M. (2006). Need for closure, jumping to conclusions, and decisiveness in delusion-prone individual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6), 422-426.
- McLean, C. P., Asnaani, A., Litz, B. T., & Hofmann, S. G. (2011). Gender differences in anxiety disorders: prevalence, course of illness, comorbidity and burden of illnes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8), 1027-1035.
- Nitschke, J. B., Heller, W., Imig, J. C., McDonald, R. P., & Miller, G. A. (2001). Distinguishing dimension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1), 1-22.
- Oglesby, M. E., Stentz, L. A., Portero, A. K., King, S. L., & Schmidt, N. B. (2019). Exaggerated interpretation bias for uncertain information as a predictor of anxiety-related symptoms: A new method of assessment for IU.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64, 64-71.
- Peschard, V., & Philippot, P. (2016). Social anxie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 integrated theoretical perspective. *Cognition & Emotion*, 30(4), 762-777.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oets, A., & Soetens, B. (2010). Need and ability to achieve closure: relationships with symptoms of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2), 155-160.
- Roet, A., & Van Hiel, A. (2008). Why some hate to dillydally and others do not: The arousal-invoking capacity of decision-making for low and high-scoring need for closure individuals. *Social Cognition*, 26(3), 333-346.
- Roets, A., & Van Hiel, A. (2011).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a brief, 15-item version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1), 90-94.
- Rosen, N. O., Ivanova, E., & Knauper, B. (2013). Differentiat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from three related but distinct constructs. *Anxiety, Stress & Coping*, 27(1), 55-73.
- Santanello, A. W., & Gardner, F. L. (2007).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3), 319-332.
- Sexton, K. A., & Dugas, M. J. (2008). The cognitive avoidanc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the English transl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3), 355-370.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akagi, H., Ando, T., & Umemoto, T. (2017). Perioperative depression or anxiety and postoperative mortality in cardiac surg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rt and Vessels*, 32(12), 1458-1468.
- Van Bockstaele, B., Notebaert, L., Salemink, E., Clarke, P. J. F., MacLeod, C., Wiers, R. W., & Bogels, S. M. (2019). Effects of interpretation bias modification on unregulated and regulated emotional reactivi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64, 123-132.
- Vermeir, I. & Van Kenhove, P. (2005). The influence of need for closure and perceived time pressure on search effort for price and promotional information in a grocery shopping context. *Psychology & Marketing*, 22(1), 71-95.
- Waters, A. M., Craske, M. G., Bergan, R. L., & Treanor, M. (2007). Threat interpretation bias as a vulnerability factor in childhood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 39-47.
- Webster, A. W., & Kruglanski, D.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261-271.
- Wells, A. and Mathews, G. (1996). Modelling cognition in emotional disorder: The S-REF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11-12), 881-888
- Wound, M. L., Zhang, X. C., Becker, E. S., McNally, R. J., & Margraf, J. (2014). Don't panic: Interpretation bias is predictive of new onsets of panic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1), 83-87.

원고접수일: 2021년 7월 26일

논문심사일: 2021년 8월 24일

게재결정일: 2021년 12월 20일

# Interpretation Bias for Ambiguity, Cognitive Closure Desire, Cognitive Avoidance, and Anxiety

Seungyun Shim                      Junho Choi                      Eu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University Guri Hospital,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Hospital  
   Medical Center and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interpretation bias for ambiguity, cognitive closure desire, and cognitive avoidance on anxiety level. Data were collected from 533 college students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interpretation bias (AUSD-EX), need for cognitive closure (NFCS), cognitive avoidance (CAQ), and anxiety (STAI-S). The results were tested with the dual mediating model using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 sampling methods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re negatively an ambiguous situation is interpreted, the more anxiety increases by enhancing cognitive disclosure desire and cognitive avoidance. Addi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interpretation bias, cognitive closure desire, cognitive avoidance, anxiety